

성경적 남녀 평등 – 가르침과 리더십에서도

개관과 내용

용어에 대한 짧은 안내¹:

- 가르침과 리더십
- 상호보완주의
- 평등주의

여성이 이끄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논증들

- 가르침 금지
- 침묵 명령
- 머리와 복종
- 이스라엘의 남성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
- 장로, 감독, 집사의 자격 조건

가르침과 리더십에서도 남녀가 평등하다는 논증들:

- 창조에 근거한 논증
- 구약의 여성들
- 신약의 여성들
- 역사적 논증 – 교회사 속의 여성들
- 구원론적 논증
- 은사적 논증

요약

- 남녀 관계에 대한 저의 정의

인용: “그렇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은 실제로 두 개의 성경 본문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순전한 페미니즘처럼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오늘, 저는 이 문장이 과장된 표현이기는 해도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잡지 IDEA에 실린 글들과 독자 편지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용어에 대한 짧은 안내:

리더십과 가르침

신약성경(이하 신약)에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여러 용어로 불립니다.

- 감독(헬. episkopos; 빌 1:1; 딤편전 3:1),
- 장로(헬. presbyteros; 딤편전 1:5)
- 집사(헬. diakonos; 딤편전 3:8)
- 목자(헬. poimen; 엡 4:11)
- 인도자, 지도자(헬. hegeomai; 히 13:17; 행 15:22 아마도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사도행전 20:17, 28에서 감독과 장로는 하나의 섬김/직분을 가리키는 두 가지 명칭으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들의 섬김의 내용보다는 필요한 자격 조건이 더 많이 묘사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은 교회를 “다스리며”, 돌봄 가운데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2; 히브리서 13:17; 베드로전서 5:2-3).
- 그들은 내부의 위험(다툼, 분열 등)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거짓 가르침에 맞서며, 바로잡습니다(디도서 1:9; 사도행전 20:28-31).
- 그들은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보살핍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2; 히브리서 13:17; 사도행전 20:35).
- 목자처럼 그들은 교회에 인도와 보호와 영적 양식을 줍니다(사도행전 20:28; 베드로전서 5:2 이하). 양 떼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노인과 젊은이, 여자와 남자, 청소년과 어린이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신약에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단 한 사람도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린도 근처 겐그레아의 뵈뵈는 섬기는 사람(헬. diakonos)이자 앞에 선 사람, 곧 지도자(헬. prostatis)이라고 불립니다(로마서 16:1).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목사는 신약에 없습니다. 목사는 이 용어들과 그에 속한 섬김들을 한데 모은 것, 또는 그것들이 섞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그런 사람을 직접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은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지를 금지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초기 바울 공동체들의 공식 직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끌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신약의 증거가 통일된 지도자 명칭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중요했고 강조되었지만, 바울은 다른 지도자들을 흔히 아주 일반적으로 “동역자” 또는 “함께 싸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칭호를 붙이기보다 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말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헬. didaskalos, 고린도전서 12:28)과 지도자/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헬. kybernesis, 12:28; 또는 헬. proistemi, 로마서 12:8; 데살로니가전서 5:12; 디모데전서 5:17)은 서로 다른

활동이고 서로 다른 은사이지만,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스리고 이끄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디모데전서 2:12의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섬김들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로 알려진 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41-4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왕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헬. hegeomai)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24-27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3

감독의 섬김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여러 은사로 근거가 세워진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이 권위는 본이 되는 삶에서 **도덕적** 권위로 인식됩니다. 교회는 감독을 그 직분과 함께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에 속한 선하고 바른 교훈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사도행전 2:42; 디모데전서 1:10; 4:6; 6:3; 디도서 2:10; 요한이서 9). 가르침의 내용은 복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결국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가르치라는 요구를 받았고, 장로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며, 교사라는 성령의 은사, 곧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끄는 일에는 가르치는 일도 속합니다. 그것은 지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가르칠 능력을 갖추고,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가르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와 섬김의 기능 목록에 “설교”를 넣지 않습니다. 아마도 설교가 보통 교회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동료 신자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맥락의 설교는 사실상 전도와 같은 뜻입니다(헬. **kerysso**, 설교하다, 선포하다, 외치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성들은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런 형태로는 찾아볼 수 없는 두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기독교 안에서 성별 문제를 둘러싼 두 가지 논쟁적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상호보완주의

이 용어는 미국에서 나왔고, 존 파이퍼(John Piper)와 웨인 그루덤(Wayne Grudem)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이 입장은 1988년 이른바 **Danvers Statement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댄버스 선언)에서 발표되었습니다(여기서 독일어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Danvers-Erklärung.pdf (reformierte-freikirche.de)** (허락을 받아 게재)). 그때부터 비로소 이 용어는 독일어권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위계적인 관계로서 그렇습니다. 여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동등한 지위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성별의 구별은 "동등한 가치, 그러나 서로 다른 역할"로 설명됩니다. 여자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남자를 가르치고 이끄는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는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은 약 60년 전까지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가 낮고 열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전반적으로 여자에 대해 낮고 제한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상호보완주의가 내세우는 동등한 가치와 폭넓은 동등한 지위는 새로운 현상이며, 약 60년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우선시하고 여자를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 곧 폭넓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복음주의적 상호보완주의를 가부장제의 수정된 형태, 온건하거나 부드러운 형태로 봅니다. 그리고 가부장제는 다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관계를 위와 같은 의미에서 상호보완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에도 잘 기능하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입장이 옳거나 성경적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등주의

영어권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단서를 붙여 지지하는 입장을 평등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용어 뒤에 정확히 무엇이 숨어 있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관점은 상호보완주의와 같은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독일어 용법에서 "평등주의적"(egalitär)이라는 말은 사회 정의와 기회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 정의는 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성별이나 다른 특징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믿는 여성들도 지난 100년 동안 여성 인권 운동이 이룬 모든 성과를 감사함으로 누리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결코 그런 운동의 일부가 아니었거나 그런 운동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획일화라는 울림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똑같이 거부합니다. 여러 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다르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 속하며, 평등주의가 그것을 평평하게 깎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마주 보는 존재로서 서로에게 속한 관계를 강조하는 **상호주의** (Mutualismus)라는 용어가 더 낫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몇 년 전까지 저는 상호보완주의를 지지했고, 제 교회와 결혼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남편인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협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가 주도권과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교회 앞에서 이끌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속적 가부장제의 이 “부드러운” 또는 “기독교화된” 형태를, 저는 계속된 성경 연구와 성경에 충실한 저자들의 저작을 통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반대로 이해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해 눈이 열린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에 제 책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고, 제 홈페이지에서 저나 다른 저자들의 새로운 글로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www.frauen-vergebt-uns.de

강연 마지막에 저는 오늘 제가 정확히 무엇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신학적 논의에서 제 입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끄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논증들:

오늘 이 모임은 이 주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 흔히 많은 감정이 더해져 객관적인 의견 교환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 자기가 받은 영향, 자기 확신, 좋고 나쁜 경험,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열린 마음과 약간의 여유도 가지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교회에서 자매들이 이끌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제가 보기에 가장 흔한 반론들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이 논증들을 저 자신도 주장했습니다. 그것들은 제게 아주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제게 성경적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에 순응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이념적 형태로 남녀 동등권과 페미니즘이 찬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금지

제게 분명한 지시였던 것은 바울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인용합니다.

“여자는 일체 복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디모데전서 2:11-14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이것이 분명한 지시처럼 보이지만, 여자에 대한 이 가르침 금지가 단 한 구절과만 –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구절과만 –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지시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미친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가르침 금지를 규정하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면적인 가르침 금지입니까? 남자에 대해서만 해당합니까? 여자는 여자들, 청소년들, 아이들을 가르쳐도 됩니까? 아니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되지만, 바른 교훈은 가르쳐도 됩니까? 이 구절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의 성경 구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루터의 말로 하면,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구절들을 위의 바울의 말씀, 곧 이른바 여자에 대한 가르침 금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8-20

이것은 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속했습니다. 여제자들, 곧 여학생들도 예수님께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합니다. 교회의 예배 모임에서도, 남자들 앞에서도, 여자들에게만도, 가정과 사적인 공간에서도, 공적인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사도행전 18:26).

하나님의 도,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례입니다. 아볼로는 분명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어 이르다"는 "가르치다" 또는 "교훈하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12를 모든 여자/자매에게 해당하는 가르침 금지로 적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브리스가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가르쳤고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와 그의 남편이 아볼로를 가르친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가르침 금지가 담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가르침 금지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브리스가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아볼로)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모순을 품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여자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 금지를 거부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형제자매, 곧 형제와 자매라는 의미에서)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4:26)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헬. *anthropois*; 형제들과 자매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네가(디모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2

이런 의미에서 **나이 든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디도서 2:3). 이 교훈의 장소와 형태는 정해져 있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성 장로들**; 헬. *presbutidas*, 4세기에는 **여성 장로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저 나이 든 여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여자가 가르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를 가르치든 상관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의 은사,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신뢰성, 그리고 그의 섬김이 교회가 원하는 것이며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권한을 준 것이라는 교회의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든 본문들을 배경으로 볼 때, 바울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전 세계적인 가르침 금지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여러 번 보여 주듯이, 문제는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집집마다 퍼뜨린 여자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 부름받았다고 여기고 그 일을 할 권한, 곧 권위를 빼앗아 차지한 에베소의 부유한 여자들의 **지역적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지시**이지,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을 위한 규범적 지시가 아닙니다. 에베소의 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문제 여성들은 먼저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으로 바른 교훈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르칠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후에 어쩌면 여성 장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른 교훈에 복종하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듯이 여성에게 전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모데가 돌보아야 할 에베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문장에서 “주관하다”(헬. *authentein*)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이곳에만 나오며,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이며, “**권위를 빼앗아 차지하다**”(영어 King James Version의 표현)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말입니다.

말하기 금지

가르침 금지 본문은 흔히 고린도전서 14장의 말하기 금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 주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며 특별히 여자를 제한하는 유일한 본문들입니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다음 구절들이 분명히 규정하는 대로 여자가 예배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고린도전서 14:34-35

저의 분명한 확신은 바울 자신에 의해 의문에 부쳐졌습니다. 그는 그 앞의 11:5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매우 높은 개연성으로 예배 모임에서의 일입니다. 또 14장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말로 참여하라고 모든 형제자매에게 바울이 하는 구체적인 요구가 적어도 다섯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불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만인 제사장직도 침묵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한나의 찬양이나 마리아의 찬가가 예배에서 낭독될 때, 이 여인들은 영감된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큰 수수께끼입니다. 바울과 신약, 그리고 구약이 일반적으로나 특별히나 말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독자가 알아차리는 이 모순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설명 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충실하려는 동기에서 어떤 교회들은 절대적인 침묵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는 형제운동 출신인데, 그곳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곳에서 여자들은 설교해서도, 기도해서도, 찬송을 제안해서도, 예배를 인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함께 찬송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여자들은 세 번이나 말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곧 잠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엄격하며, 피해 갈 수도 주석적으로 풀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형제운동 바깥의 보수적인, 곧 성경에 충실한 해석자들은 이 단정적인 침묵 명령을 풀어 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절대적인 침묵 명령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필립 페인(Philip B. Payne)은 이 구절들이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과 풀다 사본(Codex Fuldensis)(4세기와 6세기의 중요하고 방대한 사본들)에서 나중에 삽입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구절은 어떤 사본에서는 우리 성경처럼 33절 뒤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서는 40절 뒤에야 나옵니다. 이런 규모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며, 이 본문이 원래 난외 메모였는데 나중에 한 필사자가 옳다고 여긴 자리에 끼워 넣었다는 단서입니다. 일단 여백에서 본문으로 들어오자, 모든 필사자가 그것이 원래 바울의 본문인 것처럼 부지런히 베껴 썼습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이 본문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이처럼 광범위한 결과를 - 이 경우에는 여자들에게 - 가져오는 비슷한 요구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규범적 지시일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와 성경 번역자는 이 구절들을 바울의 것이 아니라 초기(2세기)에 삽입된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 말하면, 이 구절들을 실제로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식만으로도 우리는 여자들에게 모임에서 모든 말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가르침과 리더십에 관한 논의 전체에서 이 구절은 빠지게 됩니다.

머리와 복종

이른바 가르침 금지 본문과 이른바 침묵 명령은 여자의 필수적인 복종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여자들은 적어도 일곱 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질서가 그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창조 질서는 복종을 끌어낼 수 있는 위계상의 차이를 근거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본문, 곧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22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을 요구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1, 7

베드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거의 같은 호흡으로 여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어차피 위계적으로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요구는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적·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어쩌면 강요에 의해 복종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 고대의 성 역할 관계에 맞서 글을 쓰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여자의 복종을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점인데 – 남성들에게 사랑하고 돌보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남자들은 이끌라거나, 다스리라거나, 지배하라거나, 하물며 복종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루터가 “가정 규범”(Haustafeln)이라고 부른 고대 가정의 질서에 관한 지시들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흔히 가혹하고 폭력적이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당시의 사회 질서를 안에서부터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의 끝에는 예를 들어 노예제의 폐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복음의 핵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곧 믿는 남편과 아내를 포함하여 동료 신자들 사이의 복종)은 **겸손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담긴 존중, 협력, 지원입니다.** 겸손과 온유처럼 복종은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고린도전서 11:3)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독일어에서 짐작하는 것과 달리, 그것은 앞장서고 이끌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두머리”(Oberhaupt)를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은유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근원과 기원**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졌고(11:8), 그러므로 남자에게 존경을 표해야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인 남자는 여자의 지배자도, 지도자도 아니라,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돌보는 구원자입니다(에베소서 5:21-33). 머리라는 은유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어린 하나 됨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 헬라어 사전들, 헬라어 성경, 그리고 바울의 용례는 바울이 “머리”로 “권위”를 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여자와의 관계에서 남자의 상위 지배권이나 지도적 역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칠십인역은, 히브리어에서 머리가 지도자,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의미일 때 **kephal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kephale**의 의미가 그런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성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오직 남성 제사장들과 열두 명의 남성 제자들은 제게 오직 남성만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성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6)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사야 61:6

구약에서 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레위 제사장직이 바쳐진 여자들, 곧 가나안 우상 숭배의 여사제들과 창기들과 대조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신명기 23:17

제사장의 섬김은 레위 제사 의식에서 행해질 때 도축업자의 일에 견줄 만한 힘든 육체노동이었습니다. 남자는 평균적으로(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있지만)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합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무 제한 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돌아볼 때 남자만 제사장이었던 이유가 성별이었을 수는 없습니다(히브리서 2-10장; 베드로전서 2:9; 요한계시록 1:6; 5:10).

열두 제자는 유대인 남자로서만 야곱의 열두 아들,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유일무이한 전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지도자와 감독이 유대인 남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이방 민족 출신의 남자들도 초대받습니다. 유대인 남자인 열두 사도가 리더십 임무에서 여자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자인 유니아는 바울에게 여성 사도라고 불리며(로마서 16:7), 바나바가 사도라고 불린 것과 같습니다(사도행전 14:14).

장로와 감독의 자격 조건

가르침 금지가 겨냥한 에베소의 여자(또는 여자들)는 어쩌면 감독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성경의 장 구분은 디모데전서 3:1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며,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이 여자(또는 여자들)에게서, 그들이 이어서 나오는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감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단계는 조용히 복종하며 배우고 겉모습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부유한 여자들은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대신(2:9) **선행**을 해야 했습니다(2:10). 바울은 감독 직분을 가리킬 때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누가 장로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3:1). 장로 직분은 이 여자들이 자격을 갖추다면 추구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3:1-7에서 남자들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헬. tis**)는 성별이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또는 그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금지된 직분을 추구하라고 격려하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누구든지/어떤 사람"을 반복함으로써, 그리고 디도서 1:6의 평행하는 감독 자격 목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어떤 사람"이 자주 그의 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디모데전서 3:1-13이나 디도서 1:5-9; 2:8의 교회 지도자 자격 조건에는 남성 대명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어 번역들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자격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 남자에게만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 전체를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단어, 곧 "남편"(헬라어로는 '남자')을 고집어내어 임의로 문맥에서 떼어 내고, 거기서 새로운 요구 조건, 곧 모든 감독은 "남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는 "한 아내의 남편"을 **일부다처자나 성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남자가** 감독의 임무에서 배제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이 관용 표현에 이중의 의미, 곧 일부다처자의 배제와 동시에 감독은 남자여야 한다는 보편적 요구를 읽어 넣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감독에 대한 바울의 다른 다의적 요구 조건 대부분을 불합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감독이 노예들이 딸린 "자기 집"과 "믿을" 만큼, 그리고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할 만큼 나이가 든 여러 "자녀"를 가져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3:11에서 여성 집사들의 자격 조건이 언급되므로, 3:12의 집사 요구 조건에 나오는 같은 표현 "한 아내의 남편"이 여자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에 표현된 **일부일처**의 원칙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가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한 아내의 남편"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일부일처의"**입니다. 남성형으로 된 헬라어 관용 표현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감독 직분을 금지하는 사도적 지시(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34-35의 침묵 명령 같은 것)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1세기에 제기되었다면, 무엇을 전제로 삼거나 무엇을 붙잡아야 했겠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남자의 리더십에 예외가 있었다면, 넓은 의미의 사회에서도 예외가 있었다면, 여자들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태도가 지배적인 문화보다 더 긍정적이었다면, 그리고 여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행사했거나 자기 집에서 가정 교회를 모았다면, 교회의 리더십이 여자에게 금지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었습니다.

가르침과 리더십에서도 남녀가 평등하다는 논증들:

성별 문제에서 한번 독립적으로, 결과를 열어 두고 성경에 다가가 보면, 여러 측면에서 평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르침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로 조명해야 하며, 한두 개의 짧은 본문으로 결정되거나 좁혀져서는 안 됩니다.

창조 기사는 저에게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을 바꾸게 했고, 이 주제에 관한 신약 본문들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에 근거한 논증

두 성별에게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며, 둘 다 생육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처음 상태에는 서열이나 위계가 없고, 임무나 역할의 분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6-28

하와의 창조는 인상 깊게 묘사됩니다. 그는 왜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 상응하는 돕는 이**를 지으리라.” 창세기 2:18 (Elberfelder(독일어 성경 번역본); 각주: 그의 **마주 선** 상대방으로, 그에게 상응하는 존재처럼)

Einheitsübersetzung: 내가 그를 위하여 **그와 대등한** 돕는 이를 지으리라.

Gute Nachricht: 내가 그를 돕고 **그에게 꼭 맞는** 존재를 지으리라.

Zürcher Bibel: 내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 알맞은** 돕는 이를 지으리라.

“그에게 상응하는 돕는 이”, 히브리어로 “ezer kenegedo”는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ezer = “힘, 도움, 구원자(남성), 구원자(여성), 보호자, 권능”

구약에서 16번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이다”, 3번은 군사적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결코 종속된 것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쩌면 우위에 있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kēnegədô: kē = ~처럼 + negəd = 앞에 + ô = 그의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 표현은 “그의 앞에 있는 것 같은 힘”을 전달합니다

일상 언어로는 “그에게 상응하는 힘”을 뜻합니다

돕는 이로서의 여자는 아랫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며, 복종이나 위계를 근거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에게는 영혼의 짝이 필요합니다. 동맹자가 필요합니다.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마주 선 상대, 보완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의 존재의 모든 측면, 곧 육체적, 정서적, 영적, 정신적,

외적이며 내적인 모든 측면에서 짝이 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이 그에게 상응하는 돕는 이가 뜻하는 바입니다.

바울도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11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봅니다. 위계는 없습니다. 위계는 있었을 수가 없습니다. 위계는 타락 이후에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16

이것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는 창조 때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배는 죄된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이 비극을 인상 깊게 입증합니다. 거기에는 선한 것도, 영적인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결과로 생긴 창조 무질서입니다.**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강자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의 이 일방적 지배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화되고 신약에 읽어 넣어진다고(eisegese)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역사적 논증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그리고 교회는 여자가 가르치고 이끌어도 되며,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 줍니다. 이 여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을 맡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질서를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시키신 것처럼 예외로 묘사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의 여성들

여선지자 미리암은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미가 6:4; 참조. 출애굽기 15:20-21). 하나님께서 친히 미가 6:4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한 여자도 자기 백성 앞에 보내셨습니다! 남자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 팀에 여자를 두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사사기 2:16, 18; 4:10, 14, 24; 5:1-31), 여선지자이자 온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4:4-5). 아내이자 어머니인(5:7)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 지휘관 바락에게 “가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었고(4:6, 14), 바락은 갔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권위로 잘 협력했습니다. 바락은 군사 지휘관으로서, 드보라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일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하만의 집과 유대인의 원수 7만 5천 명을 멸하게 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에스더 7:1-10; 9:1-32). 모르드개와 함께 “그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에스더의 명령이 이 규례를 견고하게 하였더라”(9:29-32).

제사장들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을 때 **여선지자 홀다**에게 물었고, 그의 영적 인도에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왕과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열왕기하 22:14-23:3; 역대하 34:22-32). 한 여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성 지도층이 순종한 일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열왕기하 22:14-23:25; 역대하 34:29-35:19).

이사야의 아내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내가 **여선지자**에게 가까이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 8:3

어떤 구약 본문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때문에만 여자들에게 남자들 위에 그런 정치적 또는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들이 성경적 원칙의 예외로 묘사되지도 않습니다.

신약의 여성들

예수님과 함께 고대 유대교의 성별 문제에 인간다움의 새로운 차원이 들어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여선지자가 되고, 그의 찬가는 영감된 성경이 됩니다(누가복음 1장). 이미 한나의 찬양(사무엘상 2:1 이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여자들은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분은 차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십니다. 그분 곁에서 그들은 배워도 되고 배워야 하며, 그분의 여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금기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자존감을 잃어버린 한 여자에게 그분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그분에게서 이전에 아무도 들어 본 적 없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만남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선교사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말이 ...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믿는지라”(요한복음 4:39; 28-42).

여제자들이 있었습니다(누가복음 8:1). 예를 들어 마리아는 나중에 그것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 곧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을 정확히 행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찾아가셔서 그분의 부활과 임박한 승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요한복음 20:14-18).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들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한 여자를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곧바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여자의 증언을 남자의 증언과 똑같이 믿어야 한다. 내가 그를 보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막 동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으로 새롭게 정의하신 리더십은(예: 요한복음 13:3-17) 그분에게 있어 여자에게도 적어도 남자에게만큼 적절한 것입니다.

로마서 16:1-16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에서 동역자라고 부르는 열 사람에게 이름을 들어 문안합니다. **열 사람 가운데 일곱 사람이 여자입니다.**

뵤뵤,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집사”(16:1)이자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지도자²”(16:2).

유니아,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16:7)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한 일 때문에 남편과 함께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16:3; 참조. 빌립보서 4:3).

그리고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습니다(16:6, 12).

고린도전서 16:16은 신자들에게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2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로 불립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자들을 그저 신자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맡은 지도자로 열거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많은 신자에게 문안하지만, 동역자, 곧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열 명뿐이고, 그 가운데 일곱이 여자입니다. 세 남자는 아굴라, 안드로니고, 우르바노입니다. 앞의 두 사람은 아내와 함께 언급되는데, 이는 그들의 공동 권위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공적 공동체의 지도자 가운데 이렇게 높은 비율의 여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고대 헬라 문헌의 역사 전체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이 당시 문화로서는 이례적인 의미를 가졌음을 보여 줍니다.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은 오순절에 요엘의 약속이 딸들에게도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사도행전 21:8-9

눔바는 자기 집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내주었으므로,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교회 지도자에 속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서 4:15

바울은 빌립보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던 두 여자를 언급합니다. 분명 그들은 교회에 중요한 섬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두 사람을 직접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빌립보서 4:2-3

바울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던 때에, 누가가 두 번 전하는 것처럼 그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옥에 넘기려고 노렸습니(사도행전 8:3; 9:2). 왜 여자들까지 노렸을까요? 언제나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법이고, 양 떼의 평범한 양들에게는 관심이 적거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여성들

초대 교회와 중세와 종교개혁과 부흥 운동에서 여성들이 이룬 일이라는 매우 큰 영역에 지금 들어갈 시간은 없습니다. 수천 명이 가르치고 이끌었으며, 그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아마도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장로들도 있었고, 여성 설교자와 여성 교사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말로써만이 아니라 글로써도 가르치고 이끌었다는 사실도 흔히 잊힙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유명한 여성 찬송 작가들과 작가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남성들에 비해 소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소간 불이익을 당하고 공적인 자리에 나서서는 안 되던 각각의 문화적 상황으로 설명됩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16의 그들 아래 있는 세상 문화와 그 영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곧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실재가 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론적 논증 –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과 건짐과 영생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3:26-27에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바울의 용어로는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물론 그들은 여자로서 하나님의 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아들들이 가졌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합니다. 이 특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게다가 특히 여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불가능했던 할례가 아니라 물세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지로 정해졌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이어서 바울은 당시 상황에서 폭발적인 효과를 지닌 진술을 덧붙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단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겨냥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적, 사회적, 성별의 차이가 더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갈라디아서 2:11-3:28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를 포함한 어떤 사회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복음에 모순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과 한 식탁에서 먹기를 거부한 것을 규탄합니다. 바울은 민족적 소속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교회 안에서 지위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복음에 모순된다고 논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근거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회적 범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므로(1:22), 갈라디아서 3:28의 가장 분명한 적용은 교회 안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단락은 구원을 교회의**

사회적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결합니다. 바울의 모든 글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구별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결과, 곧 교회의 실제 삶에서 이 모든 집단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태어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어쩌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노예들은 예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와 오늘날 세상의 관습과 배제와 차별은 교회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는, 그들의 태초 창조 때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평범한 남종과 여종도 교회 안에서는 교사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28과 가까운 평행 본문은 고린도전서 11:11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것을, 여자도 남자처럼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들, 곧 기도(예배의 수직적 차원, 곧 하나님께 말하는 것)와 예언(예배의 수평적 차원, 곧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맥락에서 말합니다. 다만 결혼과 그리스도인의 도덕을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분리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 리더십의 이런 활동들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족적, 사회적, 성별의 구별이 교회 안에서 더는 의미가 없다는 구원의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16 이하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면,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화목을 전하는 직분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판단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목수의 아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은 그분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맨 먼저 눈에 띄는 모든 것(사회적 지위, 외모, 성별)을 제쳐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사적 논증

성령은 여자와 남자에게 똑같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은 원하시는 대로 믿는 모든 여자와 믿는 모든 남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목록에는 가르치는 은사와 이끄는 은사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성별에 따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음 본문들은 오순절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말해 줍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16-18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나고 유지되고 인도되고 공급받는 영적 은사, 곧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이끄는 은사, 곧 다스리는 은사도 속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6-8

Zürcher 번역(독일어 성경 번역본): 7 섬기는 은사이면 **섬김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가르침이 필요한 곳에서 가르치며,** 8 위로가 필요한 곳에서 위로할 것이요, 남에게 무엇을 주는 자는 다른 속셈 없이 할 것이요, **이끄는 임무를 맡은 자는 헌신적으로 할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밝고 즐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은 능력이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28

은사적 논증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설명하며, 가장 분명한 논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고서, 그 사람이 그것을 몸의 덕을 세우는 데 쓰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언급된 은사들이 여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두신 모든 자리에서 그들이 그런 은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시스템 오류”일 것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임무이자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은사가 교회에서 임무가 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21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른 지체들의 섬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몸의 몇몇 지체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너희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자들은 낙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은사가 있는 여자들은 자기 은사에 맞는 활동 영역을 교회 밖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효율성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자매를 통해, 예언으로든 가르침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셨던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자들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와 똑같이 여자를 통해서도 자신을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원하시는 곳으로 불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구조에 막혀 원하시는 곳에 불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자주 해 왔습니다!

요약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는 여자가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를 끌어내려는 본문들은 바로잡거나 없애야 할 지역적 폐해를 묘사합니다. 여자들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도, 기독교의 초기에도, 그리고 교회사 전체에 걸쳐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이유,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은 이유로 그들은 남성들에 비해 소수였습니다.

성별 정의, 곧 동등한 권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자들이 남성들처럼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성들이 어떤 이유와 동기에서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를 늘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까?

“여자들이 ‘공식적인’ 직분을 맡을 권리도, 그 직분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그들의 섬김의 전제 조건을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권능을 받은 그들의 인간적 능력에서 나오는 의무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

남녀 관계에 대한 저의 정의

본래의 단어 뜻에서 상호보완주의는 똑같이 크고, 똑같이 강하고, 똑같은 가치를 지닌 두 존재가 서로 보완하고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자가 이를테면 시간적으로 아담보다 나중에, 아담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이유로 종속되거나 하위에 놓인 돕는 이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라는 용어가 오늘날의 신학적 논의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 남녀 관계에 대한 제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등주의도 제게 개인적으로 꼭 맞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성별의 차이, 곧 바로 서로 보완한다는 생각의 전제가 되는 차이를 적어도 단어상으로는 약화시키거나 가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남녀 관계에 대한 제 이해는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보완적 평등주의

곧 서로 보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약한 곳에서 상대를 강하게 하고, 사랑과 피차 복종 가운데 하나 됨을 살아 내는 것입니다.

저 자신과 제 아내, 많은 자매와 부부들은 완전한 평등의 성경적 근거들을 해방으로 경험했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복음의 자유를 이루는 확고한 부분입니다.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제한과 축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그 모습과 그 존재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제 책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의 제목은, 우리 남성들이 – 물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지만 – 해석의 주도권과 리더십의 주도권을 빼앗아 차지하고 여자들을 거기서 배제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지지했던 이 차별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책을 통해 공개적으로 그것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 책에 대한

몇몇 형제들의 분노는, 자기 지배가 의문시될 때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 주는 태도로 제게 보입니다. 이것은 끝나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FEG Rhein-Sieg(라인-지크 자유복음교회) 강연, Hans-Jörg Ronsdorf

이 강연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www.frauen-vergebt-uns.de

주

1. 저는 독일어의 총칭적 남성형을 두 성별의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며, 제가 보기에 명확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곳에서는 예외를 둡니다.
2. **Prostatis**는 "서열상 앞에"와 "서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신약의 관련 단어들의 모든 의미는 리더십과 관련됩니다.